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6.

研究責任者 : 趙 光 一

2017年12月31日

2018年1月1日

2018年12月31日

## 目 次

1. 研究目的 .....	3
2. 不可侵協定 提議의 背景과 妥當性 .....	5
(1) 不可侵協定 提議의 背景 .....	5
(2) 韓半島 平和와 平和統一 沮害要因 .....	7
(3) 韓半島 平和定着과 平和統一의 基本要件 .....	14
(4) 不可侵協定의 妥當性 .....	18
3. 北韓이 主張하는 平和協定의 不當性과 底意 .....	27
(1) 平和協定의 內容 .....	27
(2) 平和協定 主張의 不當性 .....	29
(3) 平和協定 提議의 底意 .....	32
4. 우리의 對備策 .....	34



## 1. 研究 目的

韓國의 統一戰略은 一次的으로 韓半島平和定着에 두고 있으며 二次的으로는 接觸·交流를 通하여 相互間의 協力の 幅을 넓히고 三次的으로 南北間의 政治的 軍事的 諸分野에 걸쳐서 統一에의 接近을 試圖하는데 있다.

따라서 一次的인 韓半島의 平和定着이란 武力에 의한 統一에의 接近은 容認될 수 없으며 武力을 拋棄하는 條件下에서만 平和統一이 可能하며 南北對話의 誠實性도 追求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1月 27日 朴正熙大統領 閣下께서 提議한 相互不可侵協定은 第一次的으로 韓半島에 取해져야할 措置인 것이다. 이 相互不可侵의 協約이 없이는 第二次的인 三次的인 期待可能性은 豫期할 수 없고 窮極的인 平和統一 努力도 결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은 當然하다.

그런데 北韓은 이런 基本的인 統一接近努力을 회피하고 統一問題를 하나의 心理戰의 次元에서 驅使하고 있다는 點에 注意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이들의 代案이 對美 平和協定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平和協定の 相對를 大韓民國에 두지 않고 美國을 가

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韓半島에서 緊張의 責任을 美軍에 두고 美軍撤収를 一次的인 目標로하여 美軍이 撤収된 다음에 韓半島에서 힘의 空白을 이룬다음, 다음 段階로 들어가서 全面的 또는 部分的 武力行使를 通하여 韓半島로 共產化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의 戰略的 次元에서 南北對話나 提議를 政治宣傳的 技巧로 보고 있다는 點은 우리의 對北戰略에 대한 여러 가지 點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北韓의 平和協定 內容과 不可侵協定에 대한 底意를 分析하고 우리의 相互不可侵協定 提議의 妥當性에 대한 心理戰 展開方向을 樹立하는데 두었다.

## 2. 不可侵協定 提議의 背景과 妥當性

### (1) 不可侵協定 提議의 背景

朴大統領이 南北間 「相互不可侵協定」을 提議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휴전협정이나 南北對話, 7·4 共同聲明,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 등 南北關係의 改善과 韓半島의 平和定着 및 平和統一 기반 조성을 위한 積極 조치나 努力에도 不拘하고, 北韓이 一方的으로 休戰協定을 위반하고, 南北對和을 中斷시키면서 다시 우리 나라에 대한 內政干渉과 非難 비난을 일삼으며, 침략적인 武力도발을 격화함으로써 韓半島의 緊張을 고조시키고 있어, 이러한 緊張要因을 보다 현실적이며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길은 남북이 서로 絶對로 침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不可侵協定」은 朴大統領이 強調한대로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南北 雙方의 同意와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大前提가 되어 있다.

그러한 同意와 의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필요하고 바람직한 협정이라도 아무런 소용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이 아무리 우리 민족의 絶실한 願望

이라 하더라도 현 단계에 있어서는 단시일내에 그 염원을 성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이 분립되어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가 平和적으로 공존을 하면서 대화와 교류를 해 나감으로써, 상호 협력의 기반을 넓혀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韓半島의 平和와 祖國의 平和統一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南北間 平和共存의 大前提로서 「相互不可侵協定」이 必要한 것이다.

따라서 朴大統領도 分明히 밝혔지 마는, 南北間 「相互不可侵協定」의 締結은 統一이 될 때까지 南北이 平和共存을 指向해 나갈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不可侵協定」은 南北 分立의 現實을 바탕으로 「유엔」을 비롯한 國際舞台에의 南北 同時參與와 「유엔」동시가입을 촉구한 6.23 宣言과도 그 根本精神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朴大統領도 이점을 分明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6.23 宣言을 통해 現在 世界的으로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는 화해 평화공존의 평화 지향적 조류를 韓半島에 그대로 이끌어 들여 이 땅에 安定된 平和를 定着시킬 것을 기약하였는데, 南北間의 不可侵協定은 바로 그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의 하나로서 제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韓半島의 平和와 우리의 平和統一을 가로 막는 根本要因이 무엇이며, 또한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 (2) 韓半島 平和와 平和統一 阻害要因

우리 韓半島에 安定된 平和가 구축되지 못하고, 平和統一을 성취하는 데 장애가 되는 가장 큰 근본요인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북한 공산집단이 南韓을 赤化함으로써만 祖國統一을 이룩하겠다는 일종의 「征服統一」路線에 입각하여, 그를 실현시키기 위해 온갖 도전을 기도하는 데 있는 것이다.

지난 72年 7月 3日 平壤放送은 祖國統一問題에 대해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祖國統一의 과제는 南에서 美軍이 철수하고 人民民主主義가 승리하여 정권을 잡아, 北의 社會主義 力量과 南의 民主主義 力量의 團合된 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祖國統一은 南韓革命이 수행되는 조건에서만, 즉 南에서 反帝民族

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수행함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

祖国統一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기치 아래 民族解放 革命을 全國的인 범위에서 완수하는 것을 그 과업으로 하고 있다.

祖国統一의 실현 방법에는 平和的·非平和的 方法이 있을 수 있으나, 南韓革命의 수행에는 오직 폭력적 방법 외에는 없다.」

불과 몇 시간 후면 7월 4일의 「7.4南北共同聲明」을 발표하게 되어 있던 前夜에 北韓當局을 철저히 대변하는 平壤放送이 이러한 放送을 하였다는 것은, 7.4共同聲明이 發表된 뒤라 하더라도 北韓의 폭력적화통일의 기본전략에는 하등의 변화도 없음을 못박은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祖国 分斷 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살펴 볼 때 韓半島의 긴장과 戰亂, 그리고 갖가지 南北間의 충돌사건 등은 모두가 北韓의 이와같은 기본전략에 입각한 挑發에 기인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北韓 共產勢力이 解放後 오늘날까지 도발한 큰 사건만 훑어 보더라도 그것은 여실히 입증되는 것이다.

解放 直後の 贊託運動에 의한 民族分裂의 助長과 社会混亂, 大邱

暴動事件, 濟州道 叛亂事件, 麗順 叛亂事件, 智異山을 위시한 南韓 各地에 浸透한 無수한 共匪 浸透事件, 6.25 動亂의 挑發에 의한 同族相殘, 巨濟島 포로수용소의 난동사건, KAL機 및 「푸에블로」号 拉北事件, 1.21 靑瓦台 습격사건, 蔚珍·三陟地區의 武裝「게릴라」浸透와 良民 학살사건, 最近의 西海 5島水域 侵犯事件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武力挑發事件들을 北韓 共產集團은 자행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休戰後에 있어서도 一方的으로 休戰協定을 위반하고, 무려 17,000 여 건에 달하는 休戰協定違反事件을 저질러 戰力을 대폭 강화하고, 全國土의 要塞化·全人民의 武裝化·全軍의 幹部化·軍裝備의 現代化라는 소위 4大軍事路線에 의해 南韓을 再侵犯하기 위한 공격력을 확보하여 『우리는 戰爭準備가 다 돼 있다』고 호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심지어 비무장지대에까지 要塞을 구축하고, 공격용 무기 및 막대한 兵力을 投入 배치하는 등 거의 休戰協定 自体를 파괴하는 듯한 인상을 질게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自主統一, 平和統一 및 理念과 體制를 초월한 民族的 大團結을 기조로 하여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해 南北인 相互 비방과 비난을 하지 않고, 對話와 交流를 통해 相互 理解와

協力を 増進함으로써 統一基盤을 다져 나갈 것을 굳게 約束한 「7.4 南北共同声明」의 發表 以後에 있어서도 一方的으로 그를 違反하고, 그것을 그들의 赤化統一 基本目標 達成을 위한 한 수단으로 逆利用하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의 主導로 이루어진 南北對話와 7.4 共同声明을 마치 自己들의 努力에 의해 이루어졌고, 우리가 마치 못해 그에 굴복한 듯이 世界 各國에 대해 虛偽宣傳을 하면서, 『南北對話와 7.4 声明은 南北이 똑같은 「두 개의 나라」로 相互 認定한 것이기 때문에 自己들도 南韓과 마찬가지로 한 國家로 認定해 달라』는 式으로 國際進出을 위한 外交努力으로 「유엔」무대에까지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한편, 72년 11월 11일 子正을 기해서 南北이 相互 比방 比난 방송을 中止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과 한 달이 못되어 마치 南韓에 있는 방송인 양 가장한 소위 「統一革命黨목소리」라는 地下放送을 통해 對南 比방 比난 방송을 재개하였고, 73년 봄에 들어 와서는 그들의 정규방송까지도 공공연히 對南 比방 比난 방송을 재개하는 등 7.4 声明을 위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그들은 73년 3월부터는 南北對話를 進行하는 과정에서도

濟州道 牛島 間諜事件, 金塘島 間諜事件, 非武装地帶 銃擊事件 등  
武力挑發까지도 자행하기에 이르렀으며, 73년 8月 28日에는 南北調  
節委員會 平壤側 委員長인 金英柱가 一方的으로 南北對話의 中斷을  
宣稱하여 南北調節委員會와 南北赤十字會談을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南北對話를 赤化統一을 위한 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  
는 속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南北調節委員會와 南北赤  
十字會談에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南北調節委員會에서 우리 側이 『실현 가능성 있는 문제  
부터 단계적으로 문제를 解決해 들어 가기 위해 5個 分科委員會  
中 經濟 및 文化·社會分科委員會를 먼저 설치하자』고 提議한데  
대해, 그를 全面 反對하고 『政治·軍事·外交·經濟·文化社會 등  
5個 分科委員會를 同時에 설치하지 않으면 하나도 설치할 수 없  
다』고 맞섰다.

또한 『그에 앞서 「軍備縮小·兵力減縮·軍裝備 導入 中止·美軍  
撤収·平和協定 締結」등 소위 軍事問題 5個項을 先決하지 않으면  
調節委員會를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다』고 赤化統一을 위해 가  
장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駐韓美軍의 撤収를 관철시킬 目的  
으로 전혀 실현성도 없는 부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더니 73년 8월 28일 南北對話의 中斷宣言 이후에 있어서는, 종래 南北赤十字會談을 통해 되돌이켜서 주장했던 各 政黨·社會 團體 및 各界 各層의 代表로써 調節委員會를 擴大 強編할 것을 主張하는 한편, 大民族會議의 提議 등 또 다른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다.

지난 1월 14일 朴大統領이 調節委員會의 改編問題를 考慮할 뜻이 있음을 밝힌 뒤, 1월 30일 제 3차 南北調節委員會 副委員長會議에서는 우리 측이 20명 이내의 人員으로 조절위원회를 확대 개편할 것을 提議한데 대해, 北韓側은 무려 한쪽에서 300명 이상씩 600명 이상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나섰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南北調節委員會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大民族會議」와 같은 性格으로 만들기 위한 속셈이며, 그와 같이 많은 人員을 참석시키려는 것은 南北調節委員會를 그들의 政治的 宣傳과 煽動舞臺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이 分明하다.

한편, 南北赤十字會談에 있어서는 『南北 雙方地域의 이산가족의 生死와 住所를 확인하고, 그들의 相逢·交流 및 結合 등 문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우리 측이 제의한 데 대해, 北韓側은 『離散家族問題는 赤十字가 參與할 것이 아니라, 離散家族들이

직접 상대방 지역에 가서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서 만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赤十字는 그를 도와 주기 위해 各 里・洞單位로 한 명씩의 소위 「了解解設員」을 상대방 지역에 파견해서 선전활동을 해 주어야 한다』고 反對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들은 『이들이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自由롭게 活動하고, 또한 무엇이든지 휴대할 수 있고, 어디든지 마음대로 돌아 다닐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社会的인 환경이 그를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現在 남쪽에는 反共法・國家保安法・反共政策・反共團體들이 있어 環境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兩쪽의 「法律的 社会的 環境條件 改善」이 先決되어야 한다』는 엉뚱한 생트집을 부리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를 固執함으로써 赤十字會談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主張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는 三尺童子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離散家族을 찾아 주기 위해 赤十字會談을 한다는 美名下에 우리 측을 完全히 武装解除시켜 無防備狀態로 만들어 놓고 數十萬名 혹은 數百萬名의 骨髓 赤色分子를 南韓에 浸透시켜 하루 아침에 南韓을 赤化하겠다는, 너무나 뻔뻔스러운 그들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韓半島에 平和가 定着되지 않고, 또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이 成就되지 못하는 가장 큰 根本要因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南韓을 赤化해서 南韓을 赤化해서 韓半島를 完全히 自己들의 손아귀에 집어 넣으려는 北韓 共產集團의 赤化統一野慾에 있는 것이다.

### (3) 韓半島 平和定着과 平和統一의 基本要件

그러면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成就할 수 있는 基本요건은 무엇이겠는가?

平和의 條件은 말할 것도 없이 戰爭이나 紛爭이 일어나지 않도록 豫防하고,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피차가 서로 상대방의 權益을 침범하지 않고 相互協力과 平和로운 關係를 유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해서도 南北間이 서로의 存在權을 認定하고 權益을 침범하지 않으며 相互內政干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고 『韓半島에서는 오직 우리만이 存在할 權利가 있고, 相對方은 반드시 우리의 權威에 服從시키거나 흡수해야 된다』는



式的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 기회를 노린다거나, 혹은 상대방을 약화시키기 위한 直接 間接의 侵略을 피한다면 서로의 敵對關係만 激化되고, 따라서 잠시도 緊張 狀態를 완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狀態下에서는 平和는 確保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두개 이상의 勢力이 平和로운 關係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가 서로의 權益을 존중하고, 다 같이 사이 좋게 살아 가겠다는 「平和共存意識」이 大前提가 되어야 한다.

한편,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條件을 생각해 보자.

平和的 統一이란 戰爭을 하지 않고 서로 對話를 통해 理解를 넓히고 相互 交流와 協力을 增進해 나감으로써, 祖國分斷 以後 4半 世紀 동안에 思想과 理念 및 體制의 차이에 의해 異質化된 우리 民族의 傳統的인 民族意識을 회복하여 同質的인 民族意識으로 醇化 시킴으로써 民族的 良心에 立脚해서 共同努力으로 祖國을 統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가 武力이나 暴力 등 非平和的인 方法에 의해 祖國統一을 成就하겠다는 소위 「武力統一」혹은 「實力統一」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즉 祖國統一이 短時日 內에 이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永遠히 拋棄하겠

다는 확고부동한 결의와 또한 그를 위한 自制와 忍耐 있는 努力을 集注해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서로가 그러한 「武力統一」또는 「實力統一」의 路線을 完全히 포기했다는 실증을 상대방에게 行動으로써 立証하는 것이 先決問題이다. 그것이 입증된다면 서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方向을 維持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相互 감시하며, 그러한 基本路線에 위배되는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崇高하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平和共存의 基本路線이 유지되도록 서로가 內政을 干涉하지 말고, 各已 自主적으로 自己側의 發展을 追求해 나가는 原則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平和적인 基本關係가 먼저 마련되지 않고서는 相對方을 不信하는 感情이 서로의 마음 속에 자리 잡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對話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相互交流와 協力을 다짐하여도 恒常 경계의 눈초리를 땀 수 없을 것이므로 民族的 同質性을 회복할 수도 없을 것이다.

7.4 共同声明에서 相互間에 理念과 体制의 차이를 초월할 것과 武力侵略의 포기와 相互 비방 비난의 中止를 다짐한 것도 바로 그 까닭이었다.

정책,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 비난 등의 정치적 선전공세를

세책, 상대방의 내정을 간섭하지 말 것.

전략행위를 일체 포기할 것.

정책, 따라서 상대방을 약화시키거나 정복하기 위한 직접 간접의

리 포기할 것.

방을 명함시켜 統一하겠다는 武力統一이나 實力統一의 路線을 完全

첫책, 南北이 서로 相互間의 存在權을 認定하고, 실력으로 상대

과 같은 基本姿勢를 確立 維持하는데 있는 것이다.

해 그 大前提가 되는 것은 統一이 될 때까지 南北이 서로 다음

이상과 같이 韓半島의 平和定着이나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

流와 協力の 幅은 훨씬 넓혀졌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는 이르지 못했음은 지는 몰라도 離散家族의 結合이나 南北 相互交

이며, 南北對話도 상당한 진전을 보여 오늘날 좁은 비후 統一까지

7.4 共同聲明과 같은 祖國統一을 위한 合意는 벌써 이루어졌을 것

만약 北韓이 林邊協定을 우리만큼만 지킬 수 있었다면, 아마

行動을 통해 실천해 나가는 단 하나의 約束만도 못한 것이다.

로 어떠한 약속을 수백번 한다 하더라도 그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는 성의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朴大統領이 擯擯한대

그리고 가장 重要な 것은 일단 約束한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겠

完全히 중단할 것.

다섯째, 현재의 남북 경계선인 휴전선에 대한 정치적 법적 근거가 되며, 6.25 動亂의 戰爭狀態의 中止에 대한 根柢가 되어 있는 休戰協定은 물론, 祖國統一을 위한 基本的인 約束인 南北共同聲明을 성실하게 지켜 南北對話를 성의있게 추진하기 위해 상호협력과 공동 노력을 경주할 것.

한마디로 말해서 統一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는 우리가 認定하든 안 하든 간에 南北이 分立해 나갈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南北이 다 같이 이러한 現實을 直視해서 그를 現實로 받아 들임으로써 平和共存의 基本姿勢를 確立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서로의 和解와 理解 增進 및 民族的 團結을 도모해 나가는 方向으로 努力하는 것이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가장 현실적이며 유일한 길인 것이다.

#### (4) 不可侵協定の 妥當性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하고 祖國의 平和統一을 成就하기 위해서는, 南北이 서로 敵對해서 相對方을 실력으로 공략하려 든다든지, 相對方의 內政에 간섭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건다든지, 또는 現在 南北關係를 規律하고 있는 休戰協定을 無視한다든지 하는 行爲를 막는 것이 先決問題 이다.

朴大統領이 提議한 南北間 相互不可侵協定은 바로 그를 위한 것 이다.

朴大統領이 提示한 不可侵協定의 內容을 보면 그 點을 더욱 分明히 이해할 수 있다.

첫째, 「南北이 서로 絶대로 武力侵犯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 천하에 약속할 것」이라는 內容은 戰爭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要件을 말하는 것이다.

北韓側은 「총이 있으니까 銃擊事件이 나고, 서로 武力을 增強하고 있기 때문에 戰爭이 일어날 要因이 增大되며 긴장상태가 조장된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서로 軍備를 축소하고 兵力을 減縮하는 등 武力을 줄이는 努力이 앞서야 된다」고 主張하고 있지만, 그러한 말은 이치에도 닿지 않는 어린이 발같은 癡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식의 논리를 전개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兵器는 勿論, 人命을 殺害할 수 있는 일체의 기구는 다 없애고, 兵力化할 수 있는 軍人이나 警察官 등을 完全히 없애야만 戰爭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主張하는대로 現在의 軍備를 다소 감축한다든지 兵力을 10萬名 정도씩으로 줄인다는지 하더라도 戰爭이 일어날 수 있는 要因은 扞拭될 수는 없을 것이다.

戰爭이 일어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兵力이나 軍備의 多寡보다는 서로의 勢力均衡이 유지되느냐 깨지느냐 하는 문제와, 더 원천적으로는 武力侵犯을 할 意思를 가지고 그런 方向으로 힘을 기울이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다.

만약 南北이 서로 武力侵犯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굳게 約束하고, 그를 만천하에 공표해서 서로가 絶對로 상대방을 무력침범하지 않는다는 保障만 선다면 韓半島에는 반드시 平和가 定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保障이 설 때에 는 피차가 막대한 경제력과 노력을 경주하면서까지 軍備를 強化할 必要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때에는 서로 合意해서 軍備를 감축한다든지, 兵力을 줄인다는지, 相互間의 勢力均衡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武力을 減縮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側이 主張하는 軍備縮小, 兵力減縮보다도 앞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南北이 서로 武力侵犯을 하지 않겠다는 相互不

可侵의 約束을 굳게 다짐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約束은 오늘날의 南北關係에 있어서 現實的으로 가장 요망되는 일이며 또한 가장 바람직한 일로서, 우리는 여기서 不可侵協定 提議의 現實性과 妥當性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南北은 相互 內政干涉을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南北이 서로 相對方의 存在權을 自己側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同等하게 認定하고, 平和的으로 共存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前提로서 必要한 要件이다.

비록 武力에 의해서 직접 침범하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存在權을 인정하지 않고, 「相對力은 언젠가는 우리 側에 병합시키거나 흡수해야 할 存在」라는 意識을 가지고, 상대방의 理念이나 體制 또는 諸般 施策과 社會狀況 등을 일일이 간섭하고 그를 비방 비난하며 시비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政治的. 文化的 社會的인 間接적인 方法으로 상대방의 권익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紛爭 要因이나 緊張要因을 增大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직접침략의 길은 막혔다 하더라도, 뒷문으로 간접침략을 할 수 있는 길은 트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不可侵協定을 締結하는 根本精神에는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不可侵協定은 直接侵略이나 間接侵略이나 간에 모든 侵略的 要因을 배제하는 것이 그 核心이 되어야 한다.

그러하여 相互 武力侵犯의 포기로 直接的인 戰爭要因을 제거하는 동시에, 相互 內政不干涉 原則의 約束으로 紛爭과 긴장 초장 요인인 간접침략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날 南北間의 不信과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며, 따라서 그것은 平和統一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不可侵協定의 체결이야말로 오늘날 南北關係의 改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셋째, 「여하한 경우라도 現行 休戰協定은 그 효력을 존속시킬 것」이라는 내용은 南北 相互間의 敵對關係의 포기와 武力 증강의 중지 및 침략적 도발행위의 금지 등으로 相互 충돌의 요인을 제거하고, 戰爭 再發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現在 南北은 政治的으로나 法的인 意味에 있어서 休戰狀態로서 熱戰狀態를 잠시 中斷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러한 休戰協定을 파기한다거나 또는 그 協定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休戰協定의 効力을 認定하지 않는다면, 政治的으로나 法的인 面에 있어서는 다시 熱戰狀態로 돌아 가는 것을 意味하기 때문에, 어느 側이든 挑發行



為를 자행한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하등 알가알부할 수 있는  
根拠가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相互武力侵犯의 禁止나 內政干涉의 단절을 約束했  
다 하더라도, 休戰協定の 効力を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전  
쟁의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不充分한 點이 많은 것이다.

한 例를 든다면, 현재의 南北 分界線인 休戰線은 休戰協定에 의  
해 규정되어 있는 境界선인데, 만약 休戰協定이 효력을 상실한다면  
그 分界線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  
을 수 있는 것이다.

最近, 백령도 등 우리 나라의 西海 5島水域에 대해 北韓側이  
休戰後 20年 이상이나 인정해 왔던 우리의 水域을 자기의 領海  
라고 생명을 부리면서 武力侵犯을 자행한 것만 보더라도 그 點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休戰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北韓은 무려 17,000여 건에 달하는  
大小 休戰協定 違反事件을 저질러 왔고, 심지어는 비무장지대에까지  
공격용 요새와 兵器 및 精銳兵力을 投入 設置하기까지에 이르렀는  
데, 이와 같은 休戰協定の 違反은 韓半島의 平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서, 이제부터라도 이 休戰協定은 철저히

준수되어야만 韓半島의 平和는 保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休戰協定の 遵守를 促求하고 그 効力の 계속을 인정할 것을 다짐하는 不可侵協定은 南北間의 平和的 關係의 유지를 위해 서 즉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平和的 祖国統一기반의 조성을 위해 시급하고도 긴요한 일로서, 朴大統領이 그를 제의한 것은 매우 時宜適切하고 妥當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朴大統領의 不可侵協定 提議는 그 目的이나 內容 및 時期에 있어서 매우 적절하고 妥當한 것으로서, 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朴大統領이 지적한대로 統一이 될 때까지 南北이 平和共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方面이며 기본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누차 말하였지만 祖国 分斷 以後 南北이 分立되어 왔고, 또한 앞으로 統一이 될 때까지는 좋은 싫든 그러한 分立的인 상태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現實은 굳이 意識적으로 外面하고 平和共存의 方向을 기 피하여, 서로 아웅 다웅하며 不信과 對立 혹은 敵對關係로 일관하려는 것은 우리 南韓을 위해서나 또한 北韓을 위해서나, 나아가 5千萬 우리 民族 全体와 全韓半島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뿐더러 슬픈 일이며, 우리의 民族的인 見地에서 매우 수치스

럽고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北韓은 우리의 平和共存 指向方針을 비난하여 6.23 宣稱에 대한 비난과 마찬가지로 「祖國分斷의 永久化 劃策」이라고 트집을 잡고 있지만, 그렇다면 北韓側에 물어 보자.

「解放 以後 오늘날까지 30年間의 祖國 分斷狀態가 우리 民族이 願해서 지속되었던 것인가? 또한 우리 民族이 祖國 分斷狀態를 認定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 民族의 分斷狀態는 美·蘇 兩軍의 韓半島 進駐와, 日本軍 敗殘兵의 武装解除를 위한 軍事的 分界線을 우리 民族도 모르는 사이에 政治的 境界線으로 固定시켜 놓은 共產勢力에 의해 結果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앞으로 統一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認定하든 안 하든, 또는 願하든 않든 간에 現在와 같은 南北 分立狀態가 지속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인데, 우리가 平和共存을 해 나가면 祖國은 永久히 分斷되고, 平和共存을 지향하지 않고 서로 대결하고 대립하는 敵對關係로써 緊張狀態를 지속한다면 당장이라도 祖國 分斷狀態가 해소되겠는가?

平和統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統一이 될 때까지 南北이 서로 平和로운 關係를 유지하면서 平和的인 方法에 의해

祖國統一을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곧 朴大統領이  
말한 『統一이 될 때까지 南北이 서로 平和共存關係를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以上과 같이 平和共存이란 平和統一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  
이요 논리임에도 不拘하고, 北韓이 굳이 그를 「祖國 分斷의 永久  
化」라고 비난하는 것은 「平和統一」云云하는 그들의 말이 羊頭  
格인 假面에 不過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朴大統領의 不可侵協定 提議는 이러한 北韓이 그 가면의 허울을  
벗고, 名實 共히 平和統一을 위한 성의 있고 현실적인 노력을 경  
주하도록 하기 위해, 그 基本要件이 되는 南北間의 平和共存을 指  
向하는데 同意하도록 促求한 매우 現實的이며 妥當한 提議인 것이  
다.

### 3. 北韓이 主張하는 平和協定の 不當性和 底意

朴大統領이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한 가장 現實的이고 妥當한 方案인 南北間의 相互不可侵協定을 提議하자,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機關紙인 「로동신문」社說을 통해 이를 拒否하면서, 『진실로 공고한 平和를 保障하기 위해서는 戰爭危險을 가시기 위한 實質的인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것은 곧 北韓이 되풀이해서 主張해 온 平和協定을 締結하는 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의 不純한 兩韓赤化革命의 底意를 드러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主張하는 平和라는 假面을 쓴 「平和協定」案이 얼마나 不當하고 非現實的인가를 똑바로 認識함으로써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底意에 대해 警告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 (1) 平和協定の 內容

北韓側이 主張하고 있는 소위 平和協定은 원래 中共 首相 周恩來가 제일 먼저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中共 首相 周恩來는

지난 71년 8월 10일 '中共을 訪問한 「뉴욕·타임즈」紙 「레스턴」記者와의 會見에서, 『韓國戰에서 이루어진 休戰協定을 종결시키고 平和協定으로 代替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主張했다.

그후 金日成은 72년 1월 10일 日本「요미우리」신문 記者와의 「인터뷰」에서 南北間의 平和協定 締結의 必要性을 밝혔고, 또 지난해 3月 14日부터 16日까지 平壤에서 열린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와 6月 12日부터 14日까지 서울에서 열린 第3次會議에서 北韓은 또 다시 平和協定을 締結하자고 主張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北韓은 軍備縮小·兵力減縮·軍裝備 導入 中止·美軍撤収 그리고 이러한 事項들을 保障하는 平和協定 締結 등 소위 5個項目의 軍事問題 優先決定을 主張하고, 이들 軍事問題가 먼저 解決되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이것이 解決되지 않으면 對話는 더 이상 進전시킬 수 없으며, 南北關係도 실질적으로 改善될 수 없고, 統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과 같이 그들은 「軍事問題 5個項」의 하나로 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했는데, 얼핏 듣기에는 그것이 진정으로 平和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듯한 印象을 주지만, 우리가 그들의 主張을 조

금만 주의 깊게 分析해 본다면 그 不當性과 底意를 完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 (2) 平和協定 主張의 不當性

北韓의 平和協定 提議가 虛構的이고 非現實的이며 不當한 이유는, 첫째로 현실적으로 实效性이 없으며, 둘째로 우리의 安保態勢를 弱化시켜 南北間의 勢力均衡을 瓦解하는 要因이 된다는 點이다.

### ① 平和協定은 实效性없는 虛構的인 政治宣傳 口號에 不過

思想과 理念 및 制度가 극단적으로 相異하고 不信이 깊은 現在의 南北關係에서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平和統一의 基盤을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南北이 平和共存할 수 있는 基盤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南北이 서로 武力侵犯을 하지 않겠다는 約束을 滿天下에 밝히고, 긴장 고조의 要因이 되는 內政干涉을 서로 삼가며, 休戰協定을 誠實하게 지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 平和共存의 基盤을 다진 다음 相互間의 意見衝突이나 差別이 비교적 적은 分野, 즉 經濟와 社會·文化分野에서부터 交流와 協力을 실시 擴大해 나감으로써 漸進的으로 相互信賴와

理解를 두터히 해 나가는 것이 가장 現實的이며 妥當한 南北關係 改善의 方法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平和共存의 분위기나 相互信賴의 기반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현 단계에서 平和協定을 맺는다는 것은 아무런 實効性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잘 지키지 않을 때는 相互不信이 더욱 深化되고 새로운 마찰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모처럼 문이 열린 南北對話를 크게 阻害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 쉽다.

그러므로 平和共存의 분위기 造成이나 相互信賴의 基盤이 이루어 지지 않은 現時点에서 軍備縮小・兵力減縮・軍裝備 導入 中止・美軍 撤収 등을 保障하는 平和協定을 締結하자는 것은 그 遵守를 保障할 아무런 바탕도 없기 때문에 現實的으로 전혀 實効性도 없는 不當한 主張인 것이다.

## ② 平和協定은 韓國의 安保態勢의 弱化에 의한 南北間 勢力均衡 瓦解要因

休戰協定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一方的으로 休戰協定을 위하여 4大軍事路線 등으로 軍事力을 增強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平和가 유지된 것은, 駐韓 「유엔」軍과 우리의 總力安保態勢로 戰爭抑制力이 確保되어 남북간에 힘의 均衡이 이루어졌기 때문



이다.

그러나 北韓은 平和協定 締結問題를 제기 하면서 先決條件으로서 駐韓「유엔」군의 無條件 撤収를 비롯하여 軍縮小・軍裝備導入禁止・減軍・「유엔」軍 撤収 등 現在로서는 實現 可能性이 없고 또한 韓國의 安保를 크게 해쳐 南北間의 勢力均衡이 瓦解될 것이 明白한 主張을 앞세우고 있다.

北韓은 休戰協定을 違反하면서 소련과 中共으로부터 多數의 最新 武器를 導入하였고, 또 北方 非武裝地帶를 要塞化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위 4大軍事路線을 推進하여 正規軍과 다름 없는 140萬의 勞農赤衛隊와 70萬의 붉은 青年近衛隊를 編成하여 놓고 戰爭準備 完了를 豪言하고 있다.

이러한 現實에서 軍縮・軍裝備 導入 中止・減軍・美軍撤収 등을 하자는 것은 一方的으로 南韓을 武裝解除시키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平和協定 提議는 南韓을 無力化시켜 우리의 安保를 破壞하여 南北間의 힘의 均衡을 깨뜨림으로써 戰爭勃發要因을 增大시키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有効한 戰爭抑制方案이 講究되지 않고 있는 現段階에서는 千萬 不當한 것이다.

### (3) 平和協定 提議의 底意

#### ① 北韓이 힘의 優位를 確保하려는 計略

北韓이 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하는 속셈에는 窮極的으로 南韓을 武装解除시켜 우리의 安保를 破壞하려는 底意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休戰協定이 締結된 後 20餘年 동안 公公연히 休戰協定을 위반하고, 소위 4大軍事路線을 強化하여 왔다. 즉 全人民의 武装化·全國土의 要塞化·全軍의 幹部化·軍裝備의 現代化를 내세워 지난 70年 11月 2日 勞動黨 第5次 全党大會에서 金日成은 이미 모든 戰爭準備를 完了하였다고 豪言壯談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戰爭準備態勢를 은폐한 채 形式 뿐인 軍備縮小나 兵力減縮을 先行시켜 平和協定을 締結하자는 것은 結果的으로 우리의 安保態勢만을 弱化시켜 그들이 힘의 優位를 確保함으로써 決定的인 時期에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을 이룩하겠다는 속셈에 의한 것이다.

#### ② 美軍撤収를 관철시키려는 底意

北韓이 平和協定을 主張하는 또 하나의 底意는 平和協定의 內容의 하나로 駐韓美軍의 撤収를 내세움으로써, 그들이 機會 있을 때

마다 입버릇처럼 主張하는 美軍撤収를 관철시키려는데 있는 것이다.

그들이 美軍撤収를 主張하는 것은 武力赤化統一을 위한 軍事力の 優位를 確保하려는 하나의 戰術이다. 北韓은 「유엔」軍의 一員인 美軍의 계속 駐屯에 의하여 象徵되는 그들에 대한 侵略者의 烙印을 씻고, 동시에 南韓을 軍事的 空白地로 조성해 볼 目的으로 한 사코 「유엔」軍인 美軍의 撤収를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 南北間의 힘의 均衡은 美軍의 駐屯을 前提로 해서 維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美軍이 撤収하면 南北間의 軍事力の 均衡이 깨어지고, 그때는 그들에게 武力赤化統一을 위한 絶好의 決定的 時期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이 「유엔」軍인 美軍의 撤収를 主張하는 것은 그들이 진실로 平和統一을 위하여나 南北間의 緊張緩和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赤化統一의 目標 達成을 위해 妨害가 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美軍을 除去하자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이 不可侵協定 提議를 拒否하고, 대신 非現實的이며 不當한 平和協定을 固執하고 있는 것은 平和協定 締結의 前提가 되어 있는 美軍撤収를 관철시켜 보려는 底意에서 나온 것이다.

#### 4 . 우리의 對比策

이상에서 우리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이 우리가 제의한 不可侵協定을 거부하는 속셈과 그들이 主張하는 이른바 平和協定 提意의 不當性과 底意를 파헤쳐 보았다.

그들이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平和統一의 基礎造成을 위한 不可侵協定을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赤化統一이라는 그들의 基本戰略에는 추호도 變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立証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우리 國民이 가져야 할 覺悟와 姿勢는 어떠한 姿態가 될 것인가?

첫째, 우리는 北韓의 속셈을 直視해야 하고,

둘째, 北韓의 挑發에 對備하는 有備無患의 態勢를 強化해야 하며,

셋째, 總和維新體制를 더욱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北韓의 基本戰略에는 變함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認識하고,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꿰뚫어 보면서 偽裝平和 攻勢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南韓을 解放시키는 것은 자기들의 불가피한 歷史的 使命이며, 南韓이 解放되지 않고서는 韓半島의 統一은 不可能하다고 말하고, 祖國統一은 「南朝鮮革命」에 의한 南韓의 共產化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解放이란 바로 共產化를 말하며, 革命이란 暴力과 武力에 의한 共產化를 意味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을 統一基本戰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이와 같이 武力赤化統一을 基本戰略으로 삼고 있는 한, 그들은 우리 南韓을 侵攻하기 위한 軍事力이 必要하며, 그 軍事力은 언제나 우리의 군사력을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소위 4大軍事路線에 의한 군사력 增強을 서둘러 왔던 것이다.

그런데 南北赤十字會談이 열리고, 7.4 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되고, 그에 따라 南北調節委員會가 구성되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會談이 열리는 등 4半世紀 동안 단절되었던 南北間의 장벽이 풀리고 對話의 窓口가 열렸을 때, 일부 성급한 樂觀論者들은 北韓이 武力赤化統一이라는 基本戰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感傷的인 統一 霧囿氣에 들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年 동안 南北對話를 進行해 오는 동안 그들은 赤十字會談에서조차도 政治性을 介入시키는가 하면, 7.4 共同聲明에 위배되는 비난과 비방을 재개하고, 또 다시 武力挑發과 간첩의 남파를 감행하며, 한편으로는 허울 좋게도 平和協定과 南北聯邦制

提議 등 偽裝平和攻勢를 적극 화하여 南韓의 社会攪亂과 國論分裂을 획책하는데 급급하다가 여의치 않자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現實的이며 妥當性 있는 韓半島의 平和定着 方案인 不可侵協定마저도 거부하면서 다시금 위장된 평화공세인 平和協定을 다시 들추어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平和協定이란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全人民의 武裝化·全國土의 要塞化 등 소위 4大軍事路線은 가려둔 채 正規軍의 감축과 美軍을 철수시킴으로써 우리 南韓을 無力化시키고, 그 틈을 타서 武力侵略에 의한 赤化統一을 달성하자는 정략적인 것이다.

이는 곧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赤化統一基本戰略에는 아무런 變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立証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一時나마 南北對話에 임하는 척했던 것이나, 위장 평화공세를 펴고 있는 것은 그들의 基本戰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를 달성하기 위한 戰術的 方便과 計略을 변경시킨데 불과한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 국민은 모두가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속셈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들의 偽裝平和攻勢에 현혹됨이 없이 現  
狀을 直視하고 우리의 反共安保態勢의 強化에 더 汗층 주력하여야  
하겠다.

우리의 周邊情勢의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処하고 北緯의 挑發에  
對備하는 安保意識을 다시금 가다듬어 總力安保態勢를 더욱 強化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國際情勢는 美·蘇를 頂点으로 하는 理念對決의 兩極體制  
에서 和解·共存을 指向하면서 實利를 追求하는 平和共存의 多極體  
制로 變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強大國들의 共存 指向的이며 實利追求的인 世界潮流는  
世界大戰의 위험을 제거하는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그  
反面 局地戰의 발발 가능성은 오히려 高潮시키는 結果를 초래  
하였다.

즉, 強大國들이 自國의 利益追求에 급급한 나머지 中小國들의 局  
地戰을 外面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印度와 「파키스탄」간의 戰爭  
이나, 越南戰, 그리고 작년 10月の 제 4차 中東戰 등은 그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다. 最近 中共의 「파라셀」群島에 대한 軍事的  
強占에 대하여 美·蘇가 취한 態度는 強大國의 實利追求에 의한

弱小國의 희생을 強要하는 오늘의 國際潮流의 1面을 實感케 하고 있다.

특히 極東에 있어서는 列強들의 利害相衡과 힘의 均衡을 위한 새로운 相互牽制作用 및 美國의 「아시아」에서의 軍事的 後退와 이에 따른 影響力 減少에 따른 北韓의 挑發性 激化 등으로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定着이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 昨今の 現實이다.

이와 같이 國際情勢의 變化가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적인 要因이 되고 있는 狀況에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休戰協定을 公公연히 위반하는 挑發行爲를 감행하는 등 再侵의 징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北韓 共產軍의 海軍艦艇들이 白翎島・大靑島 등 우리나라의 西海 5島水域에 대해 不當하게 領海權을 主張하면서, 그 곳을 往來하는 우리의 民間船舶들을 위협하는 挑發行爲를 저지르고, 특히 金日成은 그의 新年辭에서 例年과 달리 南北對話에는 한마디의 觸及도 없이, 소위 「南韓革命」完遂를 다짐하고, 奮鬪力 強化를 指示하면서, 『南韓에 있는 進步的 勢力과 力量을 集結하여 革命課業을 완수하자』고 선동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北韓 共產主義者



들의挑發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언제 또 다시 6.25와 같은 奇襲的인 南侵攻擊을 감행해 올지 모르는 準戰時 下에 놓여 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國民들은 모두 이같은 對外的인 挑發的 要因과 예상되는 北韓의 武力挑發에 對備하여 安保意識을 철저히 하고, 總力 安保態勢를 더욱 強化하여 有備無患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하겠다.

우리는 南北對話를 뒷받침하고, 總力安保態勢를 강화하기 위해 總和維新體制를 더욱 굳게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견잠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激變하는 國際情勢와 世界的인 經濟波動의 激浪, 그리고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變함 없는 挑發威脅에 直面하여 슬기롭게 그 모든 挑戰과 試鍊을 克服할 수 있는 生活姿勢와 態勢를 強化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當面 課題이다.

이와 같은 時点에서 國家의 安定과 繁榮을 기약하고, 그 바탕 위에서 祖國의 平和統一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國民總和에 의한 國力の 培養과 組織化를 위한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朴大統領의 英斷으로 斷行된 10月維新은 우리 民族의 生存과 繁榮 그리고 自主的인 平和統一을 期約하기 위한 民族主体性的 確立과 그 強化를 基本理念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나라 안팎으로부터 여러 가지 挑戰과 위협이 增大해 가고 있는 오늘의 現實을 直視하고, 民族活路를 개척하려는 維新理念을 俱現하기 위해 總和的인 團結과 国力의 組織化에 더욱 분발 노력해야 하겠다.

10月維新이 나 自身과 우리 祖國의 生存權 確保라는 絶對絶命의 要請이라면, 우리는 維新体制야 말로 내가 살고, 나라가 살며, 또 우리 後孫들이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길이며, 平和統一을 기약하는 가장 賢明한 体制라는 것을 銘心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總和維新体制를 더욱 굳게 다져 나가야 할 根本理由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維新体制를 더욱 굳게 다져 나가기 위해 온 國民이 다 같이 一系不亂하게 團結하고, 維新課業에 能動的으로 参与하는 總和的인 努力을 傾注하지 않으면 안 된다.